

2017년 5월 25일

---

# 몽골 대선 전망과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 전문가풀 발표자료

발표자: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교수

- 차례 -

1. 몽골 대선 전망

가. 2017년 대선 전망

나. 경제개발과 대외교류에 대한 후보자별 정책전망

2. 몽골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가. 에르데네바트 정부의 주요 경제과제

나. 경제위기 대응책과 IMF 확대신용공여

다. 향후 경제정책 전망

부록

- 주요 내용 -

- 몽골은 오는 6월 26일에 대선은 앞두고 있으며, 선거대결은 주요 두 정당 후보자간의 양자대결로 예상된다. 인민당 후보자인 옹흐볼드의 경우 지방과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민주당 후보자인 바트툴가는 수도권 지역과 젊은층에게 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 후보자인 옹흐볼드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후보자 당선 시 자원개발관련 정부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 에르데네바트<sup>1)</sup> 정부는 급락한 경제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바닥난 재정, 사상 최고치의 외채누적 등 여러 모로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운영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출범 직후부터 경제위기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금융기구 구제금융 수용과 더불어 각종 대응책 추진한 결과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구조적 문제해결은 과제로 남아있다.

1) 몽골에서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며, 총리는 집권당에서 선출된다. 현재 총리는 2016년 7월 7일에 취임한 인민당의 자르갈툴긴 에르데네바트이다.

## 1. 몽골 대선 전망

### 가. 2017년 대선전망

■ 몽골 국회에서 공표한 “2017년 대선 일정과 선거 공표에 대한 결의”에 따르면 대선은 2017년 6월 26일, 해외 투표는 6월 10~11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sup>2)</sup> 지난 5월 20일이 대선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으며, 원내정당들이 대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sup>3)</sup>

- 몽골인민당은 작년 12월부터 당원 17만 명과 일반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8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당내 경선 후보자들을 선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회 부의장인 남도르지(Ts. Nyamdorj)를 비롯한 5명의 예비 후보자가 선출되었는데, 이들 중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 즉 앙흐볼드(M. Enkhbold)와 남도르지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인민당은 8차 소회의를 통해 투표를 벌인 결과 현직 국회의장인 앙흐볼드 후보자가 85.7%로 압승함으로써 당 후보로 대선 출마하게 되었다.
-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12일 당내 경선에서 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종 후보자로 바트툴가(Kh. Battulga)가 출마하게 되었다. 민주당 대선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던 아마르자르갈(R. Amarjargal)은 366표차로 패배하게 되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아바르(Baabar), 템우진(Kh. Temuujin) 등 몇몇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야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sup>4)</sup>
- 원내정당 중 하나인 몽골인민혁명당은 당 대표인 앙흐바야르(N. Enkhbayar, 전직 대통령)를 후보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최근 5년 동안 몽골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위원회에서 등록을 거절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기간 1시간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새로운 후보자 강바타르(S. Ganbaatar)는 그 동안 무소속으로 정치생활을 해왔으며, 리오틴토(RioTinto) 사 등 광산업계 외국인직

2) УИХ-ын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2017 оны ээлжит сонгуулийг товлон зарлах, сонгуулийн санал авах өдрийг тогтоох тухай <http://www.legalinfo.mn/law/details/12403>

3) 몽골 헌법상 피선거권 자는 몽골 국적자로 만 45세 이상, 최근 5년 간 국내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국민 직선제를 통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회 연임 가능하다. 원내정당만 후보자를 출마시킬 수 있다.

4) Баабар, Ганбаатарыгаа гаргасан нь зөвдөнө дөө <http://baabar.niitlelch.mn/content/8535.shtml>

접투자 기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대표적인 시민사회 운동가로 알려졌다.

■ 현재 주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보도, 소셜네트워크 흐름을 파악할 때 세 후보자 중 바트톨가는 젊은층과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옹흐볼드는 지방과 중장년층에게 유권자들에게 인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바타르 후보자는 대졸진위 문제, 외국인투자자 반대 활동, 여러 번의 소속당 변경 등 여러 부정적 요소로 인해 이번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 대사에서 제외된다.

- 몽골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산트마랄(Santmaral)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로 옹흐볼드는 4.6%로 4위, 바트톨가는 2.5%로 8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3.8%로 민주당 후보자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인민당 후보자는 2.9%로 하위권에 들어갔다.<sup>5)</sup>
- 한편, 2014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몽골경제컨설팅 사(MEC)에서 지난달에 진행한 ‘정치지표 (Political barometer)’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도 높은 정치인 중 2위로 바트톨가가 선정되었다. 한편 정치활동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중 2위로 옹흐볼드가 뽑혔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응답으로 980명 중 29%가 바트톨가, 11%는 옹흐볼드를 택했다.<sup>6)</sup>

■ 여야 대선후보자 둘 다 정치생활을 오래했고, 당을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승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 옹흐볼드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올라바타르 시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인민당 대표인 옹흐볼드 후보자가 당선 시 여당의 총선공약 이행을 이끌어가고, 현 정부내각이 추진하는 중요 정책과 사업을 지원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정 해소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들은 옹흐볼드 후보자를 투표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옹흐볼드 승리를 가로막을 요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올라바타르 시 시민들의 경우 옹흐볼드 후보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다. 현재 올라바타르의

5) Сант маралын судалгаагаар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ьд хэнийг дэмжих вэ.  
<http://www.ikon.mn/n/zcm>

6) Улс төрийн барометр 2017, <http://www.trends.mn/n/6586>

무계획적인 도시개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토지개발을 따른 부정부패 악화 등이 그 이유이다.<sup>7)</sup> 이에 더해 옹호볼드는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내놓을 만한 뛰어난 업적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 바트톨가 후보자는 2000년 이후부터 정치생활을 시작했으며, 민주당내 여러 계파 중 하나를 이끌어왔다. 몽골의 재력가 중 한 사람이다. 칭기스 칸 동상 건립 사업, 유도와 삼보협회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몽골의 첫 금메달 선수를 배출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대중들에게 인기 많다. 그의 주변에는 몽골의 유명 인사들이 많으며, 예술, 문화, 스포츠, 미디어 주요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진력이 강한 리더, 민족주의를 선호하는 애국자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그러나 바트톨가 후보자에게는 지지자만큼 반대자들도 있다. 2010-12년 바트볼드 정부와 2012-14년 알탕후야그 정부를 거쳐 도로교통건설부 장관, 산업농업부 장관 등 주요 자리를 맡으면서 신철도 사업개발 면목으로 2.1억 달러 예산을 탕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 솜(Shine sum) 사업, 마이다르 시(Maidar hot) 사업, 사잉샨드 산업단지(Sainshand tusul) 사업 등 여러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 주요 후보자들의 그 동안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의혹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다. 선택권 없는 선택 (Songoltgui songolt)으로 이번 대선 불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도 있다. 또한 몽골 유권자들의 선거문화 즉 교차투표를 하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sup>8)</sup>

표 1. 역대 몽골 대선 결과

집권당	인민당 후보	민주당 후보	국민 선거투표율
1993 인민혁명당	오치르바트 - 57.78%	투데브 - 38.7%	92.7%
1997 민주당	바가반디 - 60.81%	오치르바트 - 29.81 %	85.6%
2001 인민혁명당	바가반디 - 58.13%	공칙도리지 - 36.53%	82.9%
2005 인민혁명당	옹호바야르 - 53.44%	옹호사이흥 - 20.03%	75%
2009 인민당(연합정부)	옹호바야르 - 50.23%	엘벡도르지 - 51.24%	73.6%
2013 민주당(연합정부)	바트에르데네 - 41.97%	엘벡도르지 - 50.23%	66.5%
2017 인민당	옹호볼드	바트톨가	

자료 출처: 몽골 중앙선거위원회

7) Д. Жаргалсайхан, Монголчууд бид загас болчихоогүй шүү. <http://jargalsaikhan.niitlelch.mn/content/8398.shtml>

8) 이평래, 제5대 몽골 대통령 선거전망, www.emerics.org

## 나. 주요 후보자별 경제정책 및 대외정책 전망

- [정책 기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기대응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옹흐볼드 후보는 대선 캠페인 구호로 “*단합된 몽골 - 친근한(친국민적) 정부*”를 내세웠다. 그는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정치세력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을 지목하고, 국민단합과 경제안정화에 정책중점을 둔다고 밝혔다.<sup>9)</sup>
  - 바트톨가 후보자는 “*몽골이 승리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sup>10)</sup> 그에 따르면 광산개발에 따른 수입이 사회 극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서민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통해 몽골인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sup>
- [경제정책] 후보자들의 대선공약 중 경제정책은 크게 위기대응책과 산업개발, 비즈니스 환경개선, 일자리 지원 등 4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개발정책과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은 두 후보자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기대응책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방향은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두 후보자 모두 국가경제개발의 주요 과제로 수출지향적 산업개발을 삼고 있다. 석탄가공, 합성가스, 가솔린 대체연료 등 석유화학산업, 철강 제련과 동광 제련 등 중공업,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은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 옹흐볼드 후보는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조치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신뢰회복과 투자유치에 힘쓴다고 강조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산업과 에너지업계 주요 개발사업 가동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기타 국가사업으로 첨단농업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다.

9) 몽골인민당 대선 후보자 옹흐볼드 대선공약, <http://www.ikon.mn/visualdata/xt/10yk>

10) 몽골민주당 대선 후보자 바트톨가 대선공약, <http://www.ikon.mn/visualdata/xt/1113>

11) 바트톨가: 이번 대선은 몽골국민의 운명방향을 좌우하는 컴퍼스가 된다. <http://www.ikon.mn/n/116j>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산층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바트톨가 후보자는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광산개발의 혜택을 국민 개개인이 이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별기금을 구성해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관련 영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과 경제성이 높은 개발사업 계약을 몽골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이익과 지역주민이익에 반하는 광산탐사와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정책노선을 취한다고 밝혔다. 바트톨가 후보자의 경제개발의 또 다른 목표 사항인 일자리확대이며, 노동관계와 노동임금 개선을 힘쓴다고 하였다.

■ [대외정책] 외교정책 관련 두 후보자의 공약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민당 후보자의 대외정책 관련 공약내용이 몽골 외교관계의 전통적인 사안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바트톨가 후보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강화 등 새로운 내용으로 차별화된다.

- 몽골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사안들 즉 ‘중국, 러시아 두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강화’, ‘제3 이웃정책 유지·개발’, ‘몽골인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위해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수 확대’의 지속과 지원은 두 후보자가 공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두 후보자 모두가 경제외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추진하는 ‘경제회랑’ 사업의 지속 추진과 수출시장 개척과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외교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옹흐볼드 후보자는 외교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바트톨가 후보자는 몽골의 교통산업을 개발해 지역내 주요 교통 허브(hub)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체제와 통합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터키 등 국가와의 문화·인문교류, 경제·관광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2.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가. 에르테네바트 정부의 주요 과제

2013년 이후 몽골의 경제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정적자와 대외부채가 급증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투그릭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거시경제가 크게 악화되었다. 신정부는 집권 직후 즉 2016년 7월 재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잇따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 동안 경제 실태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신정부가 떠맡게 될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들 발표를 위주로 에르테네바트 정부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정적자 누적은 몽골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몽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3%에 이르렀다. 이에 개발은행 채무와 정부발주 사업 관련 결제 대금을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무려 GDP의 90%에 달한다.
- 2008-09년 금융위기를 겪은 몽골정부는 IMF 대기성 차관 프로그램 수용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 그 중 하나가 2012년 ‘재정안정화법’이며, 본 법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GDP의 4% (면목 적자 GDP 2%)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 다른 구조적 대응은 ‘정부부채법’이었다. 그러나 법규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은 예산외 재정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 2013-16년 사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기부양 면목으로 정부가 총 7조 투그릭, 중앙은행은 총 4조 투그릭을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출은 자녀지원금 확대, 목축업 종사자 사회보장 혜택 등 복지지출을 연간 10% 이상으로 늘려왔다.
- 몽골 재무부에 따르면 몽골 재정적자는 2015년 1.1조 투그릭 규모에서 2016년 말에 3.6조 규모로 급증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의 예산외 재정활동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3배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재정적자의 누적에는 예산외 지출증가, 정부부채 대금지불, 사회복지 지출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표 2. 몽골 재정적자 증가추세

(단위: 백만 투그릭)

	2014	2015	2016
적자규모	-867.959	-1.156.909	-3.667.830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9%	5.0%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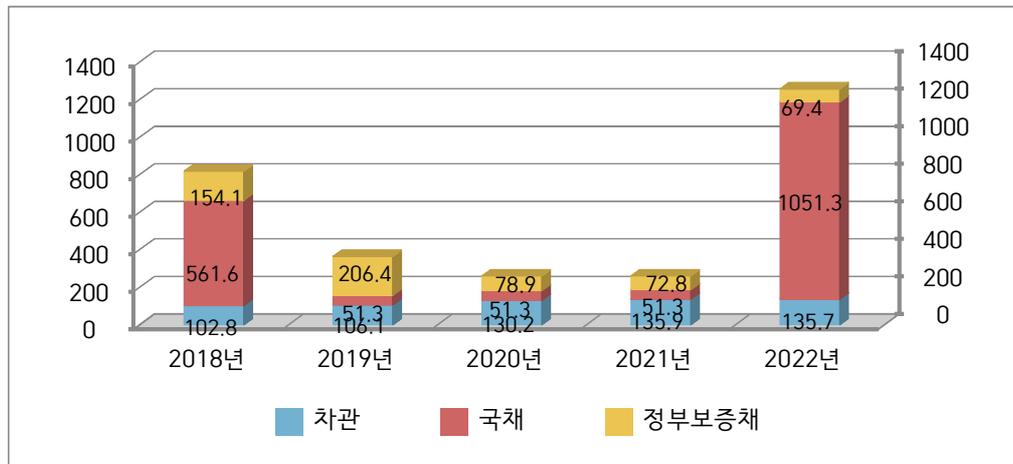
자료: 몽골 재무부

■ 2009년 이후로 몽골 정부부채는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242.6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부터 대외부채의 급증은 이자비용의 급증을 수반하게 되고, 세수 부족으로 이자지급도 어렵게 되자 상환용 국채를 발행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몽골정부는 2013년 ‘칭기스 본드’ 발행을 통해 몽골의 외채가 급상승하였다. 2008년 부채누계는 22억 달러였으며 2016년 242.6억 달러로 지난 10년 사이 11배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대외부채는 120억 달러이며, 정부 부채는 47.6억 달러, 중앙은행 부채는 17.3억 달러에 이른다.
- 앞으로 4년간 몽골정부가 재정부담의 주요 요소로 대외부채 상환을 지목하고 있다. 2018년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는 8.1억 달러, 2022년 12.5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다.
- 외채누적에 따라 몽골 국가신용등급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몽골개발은행의 채권 1차 상환이 만료되었는데, 7년 더 연장했다. 이 때 새로운 국채 발행을 통해 조정되었는데, 본 국채 8.25%로 합의한 것은 지난 2012년 ‘칭기스 채권’ 5.75%와 다소 대비되는 수치로, 몽골신용도가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하락세로 인해 국제신용기구들이 몽골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몽골정부의 자금 확보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차트 1. 몽골의 외채 현황과 상환 일정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출처: 몽골 재무부

- 2013년 이후부터 시작한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급락은 재정수입 축소, 외화부족 등으로 이어져 경기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 28만 달러, 2016년 13만 달러로 급락하였다.
  - 광산업 FDI 급락을 불러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법규환경의 불안정성, 주요 외국인투자자들과 분쟁, 광물 국제시세 하락이 작용하였다.
  - 알탕후야그 정부 ‘경제활성화(EZEN)-100’, 사이흥빌렉 정부 ‘경제난 극복 조치 프로그램’ 등 여러 대책을 세웠으나 2017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회복세는 1.3%에 그쳤다.

#### 나. 에르테네바트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과 IMF 구제금융

신정부는 출범 직후인 작년 9월에 ‘2016-2020 실행계획’ 발표와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sup>12)</sup> 이어 “2018년 정부 업무계획” 작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였다. 상기 자료들에 의하면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제난 타개와 장기적 경제성장 안정화라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 [거시경제 안정화] 신정부의 최우선순위의 목표는 재정 건전성 확보이며, 재정지출축소와 세수확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12) <http://www.zasag.mn/news/khotolbor> 검색일: 2017.05.15

- 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한다.<sup>13)</sup> 모기지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후 재원은 자체 조달하기로 한다. 통합예산 제도를 도입해, 준재정 활동을 벌여온 중앙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 한편 정부는 재정수입원 확대에 힘쓴다. 주류, 담배, 연료, 자동차 등 특별 소비세를 인상한다. 또한 누진 소득세 적용, 저축예금 이자소득 과세, 사회 보험료 인상, 중앙은행에 납품하는 금 세금을 다시 5%대로 인상한다.
-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2017-18년 사이 공무원 임금동결, 고위 공직자 임금 30% 삭감한다. 자녀지원금 조건부지원, 식량지원제도 변경 등 일부 사회복지 대상자를 줄이고, 지출을 축소한다. 정부 예산 발주 프로젝트 축소와 성과에 의한 조건부 자금조달 등 재정규율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한한다.
-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기금예산집행 내용을 공개한다.
-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규개정을 추진한다.

■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부는 침체된 투자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세제 또는 비세제적인 여러 지원을 제공한다.

-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1.5조 투그릭 이하의 기업에 대한 소득세 1% 부과하는 세제를 도입한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누진소득세를 도입하며, 개인 소득세 감면은 최저임금기준과 조율하는 법안 마련한다.
- 국내 투자자들에 전반적인 지원제공하고 초기투자회수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제악화로 인해 융자상환이 어려워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용정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고,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벌금 납부기간 연장 등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5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지며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중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 공공서비스 수수료 삭감하며,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특별면허와 라이선스 종류를 3배 줄이고, 중복 규제를 철폐한다.

13) Sain khuvitsaa, Sain malchin, Sain khashaa, Sain oyutan 등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며 2016년 3월-7월 사이 만해도 이들 프로그램에 총 5.96억 투그릭 투입되었다고 한다. 전 정부가 예산 외 재정활동으로 추진해온 또 다른 사업인 모기지 사업에는 총 4조 투그릭을 투입했으며, 이 중 3조 투그릭은 중앙은행이 조달하였다.

-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확대] 신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응 중 하나가 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 수용이며, 2016 말에 IMF에 공식 구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 지난 2월에 IMF 확대신용공여 (Extended fund facility) 수용에 따라 앞으로 3년 단계적으로 55억 달러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제금융기구 4.41억, 아시아개발은행 9억, 세계은행 6억 달러를 제공한다. 본 구제금융의 상환 조건은 15년 기간 3%이다. 나머지 13억 달러는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차입한다. 중국인민은행과 체결하는 150억 위안 즉 21.9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
-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 거시경제 안정화, 외채부담 축소, 외환보유고 확보이다. 프로그램 지원 선행조건으로 IMF는 몽골 정부에 2017년 추가경정예산 통과, 중앙은행의 예산외 재정활동 금지, 개발은행을 포함한 은행 자산건전성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sup>14)</sup>
- IMF 이사회는 4월말에 몽골 확대신용공여 관련 최종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몽골정부에 예산법 관련 법규 일부 개정으로 요구해 심의를 14일로 미루었다. 법 개정의 내용은 해외투자자들이 매출수입과 결재대금을 현지은행을 통해서 결재하도록 규정한 것이었으나 IMF는 일부 해외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프로그램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15)</sup> 지난 주 몽골국회는 본 법 일부개정 즉 IMF 요건을 수용함으로써 IMF 이사회는 5월 24일 회의로 구제금융제공을 최종 승인 하였다.<sup>16)</sup>
- IMF 프로그램 이행합의 결과로 국제투자자들의 몽골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국내 GDP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고 하였다.<sup>17)</sup> 대외무역도 작년 동일기간 비해 36% 증가하였다. 이에 석탄수출 증가가 수출 41%에 큰 영향을

14) 윤지현, ‘몽골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행,’ at <http://emercs.org>. 검색일: 2017.05.15

15) 몽골 언론보도에 따르면, 리오턴토 사 요청으로 IMF은 법개정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금융거래 시 몽골 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하라는 법규정을 항의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첫째, 리오턴토 사가 오유틀고이 2차 단계 사업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당시 차입조건으로 국제은행 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몽골금융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3년 몽골정부와 리오턴토 사간 분쟁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탈을 문제로 삼아 몽골 상업은행내 리오턴토 거래계좌를 동결시킨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 피해는 적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16)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Financial Arrangement for Mongolia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7/05/24/17193-imb-executive-board-approves-financial-arrangement-for-mongolia?cid=em-COM-123-35308>

17)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 4.2%” <http://www.unuudur.mn/article/96792>

미쳤으며, 수입도 30% 증가하였다.

■ [경제활성화 대책] 에르데네바트 정부 출범 직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5가지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촉진시킨다고 발표하였다.

- 타왕톨고이 사업: 전 국회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한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 투자협상이 지난 12월에 다시 개시되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중국, 일본, 몽골 투자자 콘소시엄은 총 4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으나, 국회는 몽골측 투자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협상을 보류시켰다. 이번 협상에서 몽골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은 사업운영 회사 지분 51% 이상을 몽골회사가 소유하며, 그 중에도 ‘에르데네스 몽골(ERDENES MONGOL)’ 회사를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협상의 또 다른 과제는 타왕톨고이 광산을 중국과 연결하는 타왕톨고이-가송소하이트 철도개발 사업이다. 몽골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은 사업운영회사에 (주) 몽골철도(MONGOLIAN RAILWAY) 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BOT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소유권 49%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 투자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타당성조사와 투자자금 조성에도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가초르트 광산사업: 신정부는 가초르트 광산 투자자들이 협상을 벌이는 네 번째 정부이다. 전 정부 때 국가지분을 정하고, 투자계약과 광산개발계약 조건도 합의하였다. 광산개발을 위한 새로운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광물전문위원회의 감사를 통과하였다. 본 금광의 총 매장량은 50톤으로 보고되었다. 광산개발에 따라 국가재정수입으로 4.32억 달러로 투입되며,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에르데네바트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

제목	중점 내용
거시 경제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투자 확대</li> <li>- 통합재정 추진, 예산외 재정활동 중단, 재정투자 효율성 확대</li> <li>- 재정규율 강화, 비효율적 지출삭감</li> <li>- 지역개발기금 회계감사</li> <li>- 정부발주사업 미납대금 결제</li> <li>- 부채상환 조건완화를 위한 협상개시, 부채부담 경감조치 마련</li> <li>- ‘물가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용자사용에 대한 감사평가</li> <li>- 개발은행발행 채권과 대출에 대한 평가조사, 만기대출 상환조치</li> <li>- 새로운 세제 미도입, 국내생산 지원정책 범위 내에서 일부 업계 지원</li> </ul>

비즈니스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소득 1.5조 투그릭 이하의 기업에 대한 소득세 1% 부과</li> <li>- 기업과 개인에 대한 누진소득세제 도입</li> <li>- 개인 소득세 감면은 최저임금기준과 조율하는 법안 마련</li> <li>- 국내 투자자들에 전반적인 지원제공, 초기투자회수까지 소득세 감면</li> <li>-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벌금 납부기간 연장 등 사업활동지원</li> <li>- 경제악화로 인해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용정보 회복을 위한 기회 제공</li> <li>- 5년 이상의 사업경력과 정규직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중장기 융자제공</li> <li>- 공공서비스 수수료 삭감</li> <li>-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특별면허와 라이선스 종수를 3배 줄이고, 중복된 규제철폐</li> </ul>
국제기구 협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난 극복과 위기사태 경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및 지역금융기구와 협력확대</li> <li>- 원조국가와 국제금융기관과 협상개시</li> <li>- 국가신용등급 개선과 외국인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li> </ul>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프로그램 추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개선</li> <li>- ‘에르데네스 몽골’사와 ‘오유틀고이’ 사업 추진 가속화</li> <li>- 탄왕톨고이와 기타 전략광산 개발 촉진</li> </ul>

자료: 몽골 정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

## 다. 에르데네바트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전망

IMF 프로그램 수용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만으로는 몽골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앞으로 몽골이 또 다시 경제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몽골정부가 발표한 “2016-10년 업무 프로그램” 중 후반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해 몽골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요 개발사업과 수출지향적 사업추진, 실물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인프라개발 사업을 우선 순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국영기업 민영화와 경제성 확보

- ‘에르데네스 탄반톨고이’ 사 상장을 추진하고, 국민이 보유하는 1072개 주식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 오유틀고이, 탄반톨고이, 에르데네스 등 대기업 경영개선을 통해 경제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

- 현재 89개의 국유기업 중 적자 기업 비중이 70%에 달한다. 따라서 ‘몽골 증권거래소’, ‘국가은행’, ‘우체국 은행’ 등 일부 국유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 이와 동시에 국유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와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 주요 개발사업 가동과 수출지향 사업지원

- 수출경쟁력이 높은 농업과 제조업 개발사업에 대해 금융 또는 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국내 에너지수급 확보와 수출용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일부 화력발전소 개발사업 추진을 지속한다. 재생에너지와 대체연료 사업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
- 주요 광산을 중국과 연계하는 철도개발사업의 추진을 계속한다. 타왕톨고이-가송소하이트 노선, 후우트-비칙트 노선, 시베후릉-세헤 철도사업, 주웅바양 - 향기 철도사업, 에르데네트-오보트 철도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표 4.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분야	사업명	자금조달계획
경공업 사업	육류업과 낙농업 지원사업	610억 투그릭
	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	208억 투그릭
	광산업 지질조사와 탐사업 확대	300억 투그릭
	양털, 밀, 피혁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540억 투그릭
	‘3차 농지개발사업’, 곡류와 감자 재배지원	
	산업화 21:100 프로그램	
	‘케시미어’ 프로그램 추진	
에너지 분야 사업	전문직업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력양성	
	타왕톨고이 화력발전소	민간투자
	제3호 화력발전소 증설사업	
	에너지 수급용 바가노르, 부룰주트 화력발전소	
	에너지 수출용 시베오보, 텡싱골 화력발전소	
인프라 사업	에프 수력발전소	
	메탄가스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타왕톨고이-가송소하이트 철도사업	민간투자
	후우트 - 비칙트 철도사업	
	시베후릉 - 세헤 철도사업	
	주웅바양 - 향기 철도사업	
중공업 사업	보그드칸 철도사업	
	에르데네트-오보트 철도 사업	
	후시깡 흥디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광물탐사사업 확대	(미정)

정유공장  
다르항·셀렝게 철강업단지  
동광 제련공장  
석탄가공, 석탄화학공장  
액체연료 공장

자료: “2016-2020년 몽골정부 업무계획”

■ 수출경쟁력확보와 환경개선

-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확대를 통해 무역자유화, 수출여건 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몽·중·러 경제회랑 사업 가속화를 삼자간 공동계획연구소를 울란바타르에 설립한다. 일부 물류화물 터미널 공사사업을 착수한다.
- 경제자유지대의 개발과정을 활성화시킨다.

표 5. 대외경제협력 주요 사업

사업	목표 내용
중국과 포괄적 전략협력, 러시아와의 전략협력 강화	중국과의 전략협력 중기계획 이행 러시아와 전략협력 주요 사업 착수
몽-중-러 삼자협력 제도강화	공동계획연구소 설립 자민우드 세관 처리능력 확대
대외교역 주요국가와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개시, 사전조사 추진	일본 EPA 지속추진 한국 EPA 사전조사 완료
경제자유지대 사업 활성화	알탕볼락 경제자유지대 자민우드 경제자유지대 차강노르 경제자유지대 개발

- 따라서 몽골정부 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경제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당해 1.8%, 2019년 8.1%, 2020년 5.3%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표 6. 몽골 경제성장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7.9	204	1.0	-0.2	1.8	8.1	5.3
인플레이션	11.0	1.9	1.1	6.1	6.1	6.9	6.5
수출	5774.3	4669.3	4917.3	4898.3	4943.0	5440.0	5827.0
수입	5236.7	3797.5	3357.9	3632.3	3674.9	4730.8	4824.9

부록-1

**인민당 대선 후보자 앵흐볼드 이력서**

- 1982년 제1중고등학교 졸업
- 1987년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졸업
- 1987-1989년 울란바타르 시의회 산하 서비스용역관리국
- 1989-1991년 공공서비스부 직원
- 1991-1992년 울란바타르 시의회 산하 공공서비스용역국 국장
- 1992-1996년 울란바타르 시 칭겔테 구 구청장
- 1996-1998년 울란바타르칭겔테 구 의회 의장
- 1997-2005년 몽골인민혁명당 울란바타르 시 지사회 위원장
- 1999-2005년 울란바타르 시장
- 2005-2008년 몽골국회 의원
- 2005-2007년 몽골 인민혁명당 대표
- 2006-2007년 몽골 국무총리
- 2007-2012 몽골 부총리
- 2008-2012 몽골 국회의원
- 2012-2016 몽골 국회의원
- 2012-2016년 몽골 국회 부의장
- 2013년 이후 몽골 인민당 대표
- 2016년 이후 몽골 국회의원
- 2016년 이후 몽골 국회 의장

부록 -2

민주당 대선 후보자 바트툴가 이력서

1963년 3월 3일생

1970-1798년 중학교 졸업

1978-1982년 예술전문학교 졸업

1979-1990년 몽골 삼보대표단 선수

1982-1990년 예술인위원회 미술가

1995년 몽골 명예선수

1990-2004년 Genco LLC 대표

1997-2004년 Bayangol 호텔 이사장

1999-2004년 MakhImpex 사 이사장

2004-2008년 몽골국회 의원

2008-2012년 몽골 정부각료,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장관

2008-2012년 몽골국회 의원

2012-2016년 몽골국회 의원

2012-2016년 몽골 정부각료, 산업농업부 장관